



11  
2018

# 양양소식

Vol. 282







2018 양양 구룡령 힐클라임 챌린지

## COVER STORY



오색의 가을  
사진 - SNS 홍보기자단 안영국



양양소식 · 282호

| 발행일 2018년 11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http://www.yangyang.go.kr)





# 양양소식

Vol. 282

CONTENTS

## 희망양양

- 04 기획취재 양양에서 산과 바다, 강 3색 매력에 빠지다.
- 06 ISSUE & PEOPLE  
치매파트너 김선택 '치매예방 유공 대통령상' 수상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현북면 법수치리에서 매월당 김시습을 만나다.

## 의기양양

- 10 뉴스 브리핑
  - 10 풍성한 화합 한마당, 면민 한마음 대회
  - 12 군 성장 동력 창출위해 혁신적인 조직 개편 및 대규모 인사 단행
  - 13 폐 터널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 1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추진
  - 10월 26일부터 버스운임 200원 인상
- 15 사진으로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 16 의정소식  
양양경찰서 신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 오감양양

- 18 SNS 기자단 소식 황금연어 공원
- 19 이게 최고자니 양양의 절임배추
- 20 맛있는 양양여행  
양양의 3대 미항에서 맛보면 더 좋을 겨울제철 별미 '싱통이'
- 22 문득, 양양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양양남대천'  
고운 빛깔로 가득 한 양양남대천의 가을로

##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숨결이 바람이 될 때 /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양양에서 산과 바다, 강 3色 매력에 빠지다

송이축제부터 연어축제까지 풍성했던 양양의 10월



설악산과 동해바다, 남대천을 끼고 있어 山, 海, 江, 3色 매력을 동시에 만끽 할 수 있는 청정관광도시 양양은 올 가을에도 축제의 물결로 들썩였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도 1시간 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데다, 주말이면 열린 다채로운 축제와 이벤트로 양양의 10월은 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 # 송이도 풍년, 축제도 풍년 ‘2018 양양송이축제’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인 양양송이축제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좋은 송이 수매실적을 올리며, 송이풍작과 꽤청한 날씨, 징검다리 연휴 등 삼박자가 어우러진 덕에 25만 5천명이라는 구름인파가 몰렸다. 주말에는 대규모 인파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양양시가지가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기도 하였다. 대표 체험프로그램인 송이 보물찾기는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송이돌이 만들기, 송이장승각기 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특히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공연 무대와 대형식당동을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해 관객들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으며 행사부스도 9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

### #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대성황’을 이룬 2018 양양연어축제

송이축제에 이어 ‘양양연어축제’도 21일 자연으로 연어보내기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첫 날인 18일 강원 영동권에 내린 폭우로 이틀 동안 연어 맨손잡기 체험이 취소 되는 등 축제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이후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동안에는 오히려 예년보다 많은 인파가 행사장을 찾아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하였다. 연어 맨손잡기 체험은 현장접수가 오전에 조기 매진 되는 인기

속에 당초계획보다 10% 인원을 늘려 모두 2,200명이 체험할 수 있었다.

축제 행사장과 내수면생명자원센터 연어생태체험관을 순환하며 남대천 강변의 정취를 감상하는 연어열차, 400여명의 관광객이 황금연어를 낚은 증강현실(AR) 게임, ‘연어몬’, 힘찬 연어의 모습을 저마다 소망과 함께 화선지에 담아가는 ‘연어 탁본뜨기’, 아로마 만들기, 연어 일러스트, 스탬프챌리,

## # 구석구석 양양은 축제 중

### 축제의 끝판 왕~시장은 언제나 즐거워! 왁자지껄 전통시장

축제기간동안 남대천 둔치 축제장뿐만 아니라 양양의 시가지도 들썩였다.

연어축제 기간인 10월 20일과 21일 축제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시장으로 향했다. 지난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양양전통시장 왁자지껄 페스티벌은 마술쇼, 지역문화 예술인 공연을 비롯하여 초밥만들기체험, OX퀴즈 등 오감을 만족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이 몰려 양양시장이 단순히 시장이 물건을 파는 곳만이 아닌 볼거리와 먹거리 즐거움과 문화가 공존하는 장소로 침체되었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 # 파도 좀 탄다는 사람은 안다 '양양 서핑페스티벌'

### 가을바다에서 즐기는 수산어촌체험마을 '바다체험 축제'

한편 양양의 바다도 축제의 물결로 출렁였다.

10월의 어느 날 전국의 서퍼들이 양양의 파도를 찾아왔다. 지난 13일부터 2일간 죽도해변 일원에서는 양양 서핑 페스티벌이 올해로 5회째로 열렸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대응해 엘리트 선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참가선수들은 총 12개 부문에서 기량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한 정식 경기 외에도 스폰서 이벤트와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저녁 시간에는 '서퍼스나잇'을 통해 죽도해변 일원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 및 야간행사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축제의 공간적인 범위를 마을 안길까지 확대해 서퍼들만의 이벤트가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역축제가 되었다. 또한 연어축제 기간이었던 19일부터 3일간 수산어촌체험마을에서도 가을 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바다체험축제가 펼쳐졌다.

쪽빛바다의 아름다움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요트승선과 어선승선체험이 3천원의 저렴한 체험비로 이루어져 인기를 끌었으며, 그 외 문어빵 만들기 해초비누만들기, 선상낚시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이밖에도 연어등으로 야간조명을 설치한 황화코스모스 군락지와 곳곳에 조성된 포토존, 남대천 하구에 만개한 억새밭에는 추억사진을 남기며 지역 곳곳에 양양의 매력에 빠진 인파들로 가득하였다. 契



〈글·사



ISSUE & PEOPLE 치매파트너 김선택

## 치매파트너 김선택 ‘치매예방 유공 대통령상’ 수상



치매는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질병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이다. 최근 5년 동안 치매환자 숫자가 30%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1인 세대 증가율이 44.7%로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증가율이 1.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이 부족 높아진 데 반해 치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병’이란 편견에 머물러 있다. 이는 치매를 예방□치료하고 치매 친화적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양양사람이 있다.

김선택 전 양양군보건소장이 치매예방 유공자 자원봉사자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9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유도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진행된 제11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치매예방 유공자 자원봉사자 부문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원봉사자 김선택씨는 양양군 보건소장을 역임하다 지난 2009년 퇴직했으며, 보건소 재직할 당시부터 지역 사회 독거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 # 봉사는 나의 운명

김선택씨는 보건소 재임시절부터 지역사회 의 취약계층인 독거어르신 및 자식들이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절실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조금씩 실천해오던 봉사활동을 퇴직한 이후에는 천직으로 여기고 실천해 왔다. 수년간의 공직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입장에서 다양한 보건서비스의 질적인 발전 방향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치매는 노망이다’라는 그릇된 견해에 사로잡혀 무조건 치매를 숨기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참여자 및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 자등 기관 및 단체를 찾아다니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고자 교육과 지도를 하였다. 또한 손양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노인분회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소속21개리 경로당을 순회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조기검진발견, 보건소 치매예방사업 등을 쉽게 알려주었다.

2017년에는 치매파트너를 6명 모집하여 봉사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여 재가 치매환자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가족들의 돌봄에 있어서의 역할 중요성과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김선택씨는 개인적으로는 보다 전문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봉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올바른 치매교육을 전달하고 싶었기에 광역치매센터에서 실시하는 인지건강프로그램 실무 신입자 과정을 수료하는 열의도 보였다. 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다니며 격려하고,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제공

## #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치매예방. 생활 속 일,십,백,천,만 운동 실천하기

보건소 재직 시 부터 지역사회 독거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던 김선택씨는 퇴직 후에는 치매어르신 가족을 포함하여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및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노인부부 세대를 찾아다니며 이발□목욕 제공과 보건의료, 복지, 행정적인 지원을 알아보면서 도움을 주었고 지역사회 노령화에 맞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치매예방관리와 지도에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치매예방 생활을 위해 평소건강관리와 실천, 균형잡힌 식사, 스트레스 해소, 특히 2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강검진은 꼭 받기를 권장했다. 생활 속 쉬운 실천방법으로는 일,십,백,천,만 치매예방수칙을 추천해 주었다

**‘일.** 하루 한 가지 선행하기, **십.** 하루 열 번 웃기, **백.** 하루 백자 일기 쓰기, **천.** 하루 천자의 글 읽기, **만.** 하루 만보걷기’

치매예방수칙을 매일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치매예방은 물론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 치매는 완치는 할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행정과 노인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 마을 경로당마다 인지재활교실이 운영되는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는 김선택씨는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단체를 찾아다니며 봉사를 펼치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 현북면 법수치리에서 매월당 김시습을 만나다 !



법수치리(法水峙里)는 마치 佛家の 法水を 색출한 것 같다고 하였으며, 김시습이 이곳에 머문 이유도 예부터 山水가 수려하고 地勢가 깊어 암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양양의 지명 유래에 의하면 마을 입구 강가에 운문암(雲門岩)이라고 암각 된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부근에 있던 庵子 이름을 김시습이 지었다고 하니 이 마을과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 김시습은 과연 법수치리 어느 곳에 머물렀을까?

마을 입구 진흥둔지 건너편 바디 재에 옛날에 암자가 있어 절터 골이라 부르며, 참 진흥이 많다는 토굴(土洞)에 탁인헌(卓仁憲) 효자가 부근에는 지금도 용화사(龍華寺)라는 절이 있다.

토굴을 지나 개잔이물내치기와 진흥둔지, 본동, 미능골을 지나면 길가에 쌍덕이라는 화전민이 살았다는 쌍덕폭포가 있는데 지금은 대승폭포라고 부른다. 김시습이 세조의 등극을 배타하여 세상을 주유할 때, 이 폭포 높이가 30m나 되었고 운치가 좋아 수일간 머물렀다고 전한다. 대승폭포를 지나 검달골(黔達谷) 굴아우 계곡 언덕에 전에 안현준 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터가 김시습이 머물던 집터라는 설도 있고, 팔밭목이(豆田項)를 지나 서쪽으로 약 4km쯤 廣佛里에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법수치리에는 庵子와 관련된 지명, 옛 절터와 집터 등 김시습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어느 곳에서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성전리 망월산에 고려 목종 12년에 창건한 명찰 명주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을 여러 곳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유추해 본다.

### 매월당 김시습의 생애

김시습(金時習 · 1435~1493)의 본관은 강릉(江陵), 호는 매월당(梅月堂),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한양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나 3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5세 때 이미 시를 지어 신동(神童)으로 전한다. 세종대왕이 ‘오세(五歲)’라는 별호를 내렸다.

그러나 21세(1455)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킨 후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찬탈을 하자, 3일간 통곡을 하고 보던 책들을 모두 불사른 뒤 승려가 되어 유랑하였다. 이때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진 사육신의 시신을 바랑에 담아 노랑진에 임시 매장한 생육신의 한사람이다.

31세(1465 · 세조 11)에 경주 금오산(金鰲山)에 입산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만복사저포기』 등 5편이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있고, 수많은 시편들을 『유금오록(遊金鰲錄)』에 남겼다.

47세(1481년 · 성종 12)에는 다시 安氏라는 아내를 맞고 환속하였는데, 이듬해 예상치 않던 ‘폐비윤씨사건(廢妃尹氏事件)’이 벌



어지자 또다시 승려가 되어 관동지방을 찾게 되었는데, 이 무렵 양양부사 유자한(柳自漢 · 1486)과 교분이 깊어, 법수치리 검달골(黔達谷)과 설악산에 머물며 자연을 벗 삼아 쓴 100여 편의 시가 『관동일록(關東日錄)』에 있다.

【명암 이해조의 『명암집』 6권, 岷山三十詠에 양양에 은거(隱居)한 기록】

양양부사 이해조(1709 · 숙종 35)는 재임 시 양양의 아름다운 명소 30곳을 엄선하여 ‘현산30경’이라는 시문을 남겼는데, 그중 제23경, 24경, 28경에 양양에 은거한 기록이 있다.

제23景 봉정암(설악산) 편 서문에 “봉정(峯頂) 아래 이 십리 정도에 십이폭포가 있고, 서쪽엔 梅月堂 金時習이 살던 옛터가 있다.”라고 하였고, 제24景 沙林寺(선림원지) 편에 “절 앞의 돌비에는 곧 『梅月堂集』에 王羲之의 글자체로 홍각선사(弘覺禪師)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했고, <.....중략>

제 8景 검달동(黔達洞) 편에 黔達洞 在府南八十里山谷間 絶險處 疊石環擁 人迹罕到 卽梅月堂舊隱處 遺址尙存 俗傳五歲童子基云 검달동은 부의 남쪽 팔십 리 아주 험준한 산골에 있다 첩첩한 산봉우리가 빙 둘러 안고 있어 인적은 드물다 즉 매월당 김시습이 옛날 수년간 수학하며 은거하던 곳으로 살던 터는 아직 남아있다 속세에 전하기로는 오세의 어린 동자가 살던 터라 한다 라고 기록했다



김시습이 머물던 집터와 효자각

## 『매월당집 · 율곡집』에 양양부사 유자한과의 友情을 보면

○ 양양부사 유자한의 재임기간에 ‘상류양양진정서(上柳襄陽陳情書)’ 등 여섯 편의 書信文이 실려 있다.

○ 유자한 부사가 梅月堂의 後嗣를 걱정하여 上京 時 양양의 官妓 가운데 소동라(所冬羅)를 同行 시켰다. 友情에 못 이겨 데리고 가기는 했으나 얼마 간 있다가 노재(路資)를 주어 양양으로 되 내려 보냈다.

○ 유자한이 양양부사로 있으면서 공을 예로 대접하고, 다시 세속 살림을 회복하기를 권하니, 공이 편지로 사절하여 말하기를 “장차 긴 삼을 만들어서 복령(茯苓)과 백출(白朮)을 캐고, 一萬 나무에 서리가 맺힐 때에 仲由(孔子的 제자 子路)의 무명옷을 기워 입고, 一千山에 눈이 쌓일 때 王恭(晉의 前將軍)의 학창의(鶴窓衣 · 학의 털로 만든 갑옷)를 떨쳐입으려 한다. 낙백(落魄 · 뜻을 이루지 못함)하여 세속에 사는 것보다는 소요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천년 뒤에 나의 본 마음을 아는 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翻譯: 鄉土史研究所 又泉 李鍾口>

매월당 김시습은 단종이 폐위되자, 淸節之士로 절의를 몸소 실천하면서 양양의 법수치리와 설악산에서 초연히 유랑하며 오랫동안 물렸던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대승폭포와 운문암



## 풍성한 화합 한마당, 면민 한마음 대회 열려

지역주민은 물론 직장 근로자, 출향인사, 군부대, 학생 등 참여



양양의 대표축제인 양양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된 가운데 10월 23일 손양면을 시작으로 양양군 5개면의 면민 한마음대회가 개최돼 풍성한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10월 23일(화)에는 '제15회 손양면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공항구장에서, 25일(목)에는 '제14회 서면 한마음 체육대회'와 '제16회 현북면민 한마음축제'가 상평초등학교 운동장과 하조대축구장에서, 26일(금)에는 '제18회 현남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와 '제16회 강현면민 한마음대회'가 각각 현남중학교와 강현중학교 운동장에서 각각 개최됐다.

면민 한마음 대회는 1년에 한 번, 수확을 끝낸 늦가을에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농과 생업으로 한 해 동안 수고로한 서로를 위로하면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주민주도형 행사이다.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 민속놀이와 체육경기,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을 펼치고, 참







석자들에게 음식과 경품을 제공하는 등 푸짐한 잔치를 벌인다. 특히 면민들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각종 문화활동 등을 선보이는 공연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각 면에 소재한 군부대 및 직장 근로자, 외지로 나간 자녀, 출향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화합의 분위기를 더한다.

손양면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주)현대엘리베이터(대표 장병우) 전기압력술 20대를 노인회에 기증했으며, 서면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황이리마을회가 전통소리인 다디미소리 공연을 진행해 박수를 받았다.

현북면민 한마음축제에서는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물놀이와 노래교실, 춤바, 켈트, 손글씨반이 공연과 전시

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강현면민 한마음대회에서는 강현면민속보존회가 농악공연을 진행했다. 또 현남면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양양군서핑연합회 회원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핑강습을 진행하고, 현남중학교 학생 20명과 지역주민 20명이 피구 경기를 하는 등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한편, 양양군 6개 읍·면 중 유일한 읍 단위지역인 양양읍에서는 오는 11월 23일 양양읍 승격 39주년을 맞아 문화복지회관에서 제12회 '양양읍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Tel. 033-670-2221





# 군 성장동력 창출위해 혁신적인 조직 개편 및 대규모 인사 단행

행정수요에 따라 대외정책과 · 소득개발과 신설, 기능 중복기구는 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329명 대규모 인사 단행



우리군이 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32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대외정책과와 소득개발과 등 2개 과가 신설되고 기능이 이원화되고 있는 대과는 분리하고, 중복된 기구는 조정했다. ‘대외정책과’는 동해북부선 철도와 플라이강원 면허, 남북협력사업 발굴 등 대외적인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되고, 농업기술센터 내 ‘소득개발과’는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 개발과 규모화로 고소득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정책과는 분장사무를 조정해 ‘농정축산

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기술지원과와 새로 신설되는 소득개발과까지 3개 조직을 운영해 농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기존의 경제도시과는 ‘경제에너지과’와 ‘도시계획과’로 분리하여 경제 업무와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전략사업과는 신설되는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와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 상하수도 업무를 일원화하고, 허가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는 부서 명칭을 ‘허가민원실’, ‘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과’로 알기 쉽게 변경했다.

## 주택 · 공항지원 · 소상공인담당 신설, 10월 29일자 329명 인사 단행

부서 내 하위조직도 일부 개편됐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늘어나는 공동주택 수요에 대응해 ‘주택담당’을 신설하고 플라이강원 신규 면허 취득 등 강원도가 추진하는 공항 활성화 정책을 분담하고 양양공항을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공항업무 전담부서인 공항지원담당을 새로 배치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상공인담당’을 신설 했으며, 도심 내 공원과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원녹지담당’도 신설됐다.

특히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및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중화장실과 가로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문화체육시설 관리, 도시공원 관리 등 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재배치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 10월 29일자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승진 30명, 신규 11명, 전보 288명 등 총 329명 규모의 대규모 정기인사가 단행됨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인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본격적인 군정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문의 자치행정과 조직인사담당 Tel. 033-670-2120



## 폐 터널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양수발전소 폐터널, 일제강점기 건설된 도화터널 활용방안 마련



우리군이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폐터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손양면 도화 터널과 양수발전소 터널 등 2개의 폐터널이 있다. 손양면 도화터널은 길이 0.3km, 폭4m의 마제형 터널로 일제 강점기 연해주 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통망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본격적으로 열차가 운행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종전 후에는 마을에서 감자 저장창고로 사용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도화터널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살려 관광 자원화하자는 의견을 오랜 기간 제시해왔으며, 군이 올해 완료한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 관광상품 개발용역'에도 도화터널 관광자원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장시간 폐쇄되어온 도화터널에 대해 물리적,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월초 정밀 안전진단용역을 발주했다.

군은 용역결과 터널의 타용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도화터널의 역사, 구조, 환경

등을 활용,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측이 지역 관광자원 창출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양수발전소 내 폐터널 사용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양수발전소 폐터널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양수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자재 운반 등으로 사용됐으며, 폐쇄된 지 10년 이내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군은 양수발전소 폐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하기 위해 '양양 양수발전소 폐 터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원형 그대로 보존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터널 내·외부 정비, 터널의 관리 활용방안,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제시받을 예정이다.

우리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폐터널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관광 명소화 사업을 실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Tel. 033-670-2101



## C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추진

용역 결과 토대로 환경부 및 강원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우리군이 효율적인 폐기물 자원순환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조성으로 도심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서핑 등 해양레저 활성화로 양양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합 배출하고 있어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물론, 소각시설 노후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환경문제 및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 단지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인근시군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설규모 추정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특성과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도시개발과 지역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공정을 갖춘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계획용량은 1일 15톤 규모이며, 시설 위치와 규모와 정확한 처리 용량 등은 이번 용역을 통해 산출할 예정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 강원도와 환경부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일 1.6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이달 15일부터는 양양어시장 내 14개소 및 수산항 주변 식당 16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Tel. 033-670-2183

## C 10월 26일부터 버스운임 200원 인상

유류□인건비□차량구입비 등 버스 운송원가 상승으로 조정 불가피

우리군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6일부터 200원 가량 인상됐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근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가 도내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버스요금 조정으로 8km 이내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행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00원 인상되며, 20% 할인 받는 중고생은 960원에서 1,120원으로, 50% 할인되는 어린이는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0% 할인이 적용되어 성인은 1,260원, 청소년 1,010원, 어린이는 630원의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요금상한제는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되, 버스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해 현행 1,500원에서 200원 인상 1,700원으로 결정됐다.

요금상한제한 거리비례제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요금의 상한을 정해 일정금액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양양군 16개 노선 중 절반이 넘는 9개 노선이 대상이 된다.

변경된 버스요금을 적용하면 속초 노선을 비롯해 강현 상복리, 현남 지경리, 서면 갈천리 등 20~30km 원거리 노선도 1,700원의 운임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군은 그동안 운송업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인건비와 운송원가 상승, 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을 반영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한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이번 인상을 계기로 배차시간 준수, 차량 청결 유지 등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허가민원과 교통행정담당 Tel. 033-670-2170





##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양양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의 주최로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어르신 큰잔치가 열렸어요!(10.1)
2. 양양소방서 송이축제 송이보물찾기 체험. (10.1)
3. 호박이 주렁주렁~! 사천리마을을 단호박축제!(10.13)
4. 양양 세계로 날다~! 양양-호치민, 양양-대만 새로운 노선이 취항 했습니다.
5. 신나게 놀아~! 정신없이 놀아봐~! 양양의 어린이집 연합 운동회가 열렸어요!(10.17)
6. 양양시장에서 장봤어요~! 재부천강원도민회 내 고향 장보기!(10.9)
7. '아흔 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옥남 할머니의 북콘서트가 열렸어요~!(10.22)







## 양양군의회 양양경찰서 신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양양군의회 고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전원은 지난 10월 25일 55년째 경찰서 없이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양양군민의 양양 경찰서 설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양양경찰서 신설 촉구 성명서

55년째 경찰서 없이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양양군민은 양양경찰서 설치를 염원한다. 양양군의회 고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55년간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온 양양군민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라.

하나, 정부는 1지자체 1경찰서 원칙을 준수하여 양양경찰서 설치로 양양군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치안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는 양양군의 현실을 반영하여 양양경찰서 신설을 양양군과 공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양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양양경찰서 신설 예산을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라.

2018년 10월 25일  
강원도 양양군의회



##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10월 4일 제2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로써 양양군은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 2개과가 신설되는 등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노인의날 어른신 큰잔치

10월1일 2018년도 노인의날 어른신 큰잔치에 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며 식사봉사에 참여하였다.



##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

10월 15일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 의원들과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지역의 어려운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환영하며 보다 나은 양양군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신규 공무원 의회 견학

양양군 신규 공무원들은 10월 15일 양양군의회를 견학하였다. 고제철 의장은 신규 공무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규 공무원들은 양양군의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는 뜻깊은 견학의 시간이 되었다.





## SNS기자가 알리는 양양 소식



### 양양 황금연어 공원

연어의 고향 양양에 황금연어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양양 황금연어 공원은 물치항에 있는 대형 주차장을 활용하여 양양의 대표어종인 연어를 형상화하여 만든 공원입니다.

양양 황금연어 공원은 화려하고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연어를 상징하는 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황금연어 공원에 도착 하면 대형 황금연어가 금방이라도 물을 박차고 하늘로 치솟을 듯한 멋진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연어는 양양 남대천 상류에서 태어나 바다로 가서 성장하여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양양 남대천으로 회귀합니다.

중간 중간에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 넘어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 산란을 하고 일생을 마무리 합니다.

황금연어 공원은 이렇게 비상하는 연어와 연어알의 조형물을 실감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최근 준공된 전망대에 오르면 물치의 바다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전망대 스카이 워크 끝은 유리로 마감되어 마치 바다위에 있는 짜릿함도 맛볼 수 있습니다.

7번 국도를 달리다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황금연어 공원에서 양양의 바다를 한껏 즐겨보세요.

글 · 사진 : SNS 홍보기자단 이돈출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와 양양군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이기(이게) 최고자니! 양양의 절임배추



### 코앞으로 다가온 김장철, 어깨통증 줄이며 맛있는 김치를 담가 보자

늦가을에 기온이 내려가면 집집마다 김장은 빠지지 않는 행사이다. 김장은 예부터 사람들이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을 말한다. 김치는 한국 고유의 향신료와 해산물로 양념하여 발효한 한국적 방식의 채소 저장 식품을 일컫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760년 이전에도 한국인의 식단에는 김치가 있었다고 한다. 김치는 계층과 지역적 차이를 떠나 한국인의 식사에 필수적이다. 밥과 김치는 가장 소박한 끼니이지만, 가장 사치스러운 연회에서도 김치는 빠질 수 없는 반찬이다.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고 1인 가족이 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쉽지 않은 작업의 김장이란 부담으로 다가온다.

김장의 50%는 배추를 다듬고 반나절 이상 소금물에 절이고 다시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다. '김장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장 후 어깨, 허리 무릎을 비롯해 온 몸이 쑤시는 몸살을 호소하곤 한다.

올 겨울 김장은 양양의 바닷물로 절인 절임배추를 이용하여 우리 어머니의 어깨통증 줄이고 건강을 챙겨 드리는 건 어떨까?



### 바닷물로 절여 아삭아삭한 '양양의 절임배추'

김장은 양념의 맛도 중요하지만 배추와 절임에 필요한 소금이 중요하다. 해안가가 인접한 지역에서 리어카에 배추를 싣고 바닷가로 가서 배추를 절여 김치를 담그곤 했다. 이는 바닷물은 염도가 적당하며 80여 종류의 원소가 녹아 있어 그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바닷물로담근 김치는 그 맛이 좋고 금방 무르지 않아 저장성이 좋다고 한다.

### 양양물에서 청정양양 절임배추 판매중

양양물에서는 양양의 해풍과 양질의 토양에서 직접 재배한 양양의 배추를 청정양양의 바닷물과 수심 2백미터 아래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로 절인 신선하고 아삭한 웰빙 절임 배추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양양의 재래시장에는 11월 김장철이면 고추, 무, 파 등 신선한 김장재료들로 가득하다.

올 겨울 김장은 양양물의 절임배추와 양양시장 김장재료를 이용하여 쉽고 편하게 준비해 보자. 매년 어머니의 김장김치를 가져다 먹었다면 올해는 양양의 절임배추를 선물하여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리자. 또한 김장이 처음이라 두려웠던 초보주부라면 올해는 양양의 절임배추로 아삭하고 맛있는 김치 담그기에 부담 없이 도전해보자.

**Tip** 양양물: [www.yangyangmall.co.kr](http://www.yangyangmall.co.kr) (문의 : 033-670-2704)



양양의 겨울바다에는 도치, 심통이, 싱통이, 싱애가 있다.  
양양의 3대 미항에서 맛보면 더 좋을 겨울제철 별미 '싱통이'



입안에서 '톡톡'터지는 알맛이 일품인 도치알탕



말린 싱통이찜



싱통이 숙회



싱통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언뜻 구분 없이 눈도 입도 똑 같이 작고 똑같이 생김새가 심통하다. 아무진 뱃심도 없어 둥그런 배를 만지고 쓰다듬고 자꾸 눌러봐도 뭉글뭉글할 뿐 손가락에 힘을 줄 필요가 없다. 비늘도 없어 팔팔 끓인 물 한 바가지면 후딱 손질을 끝내고, 국을 끓일 것이라면 바글바글 한소끔 만 끓여 내도 이 맛에 사람들은 꼬박 제철을 기다린다. 이것은 복단의 고성을 비롯해 양양 앞바다가 제철생선으로 유명한데, 이를 양양 사람들은 본래 이름인 ‘뚝지’를 놔두고 생긴 모양을 본 따 부르길 오히려 좋아한다. 이는 천연덕하게 우스운 생김새에서 느껴지는 동정심 같은 정감으로 꼭 이맘때가 되면 어시장이나 포구에서 찾는 ‘도치’, ‘심통이’, ‘싱통이’, ‘싱애’이다.

## 도치, 심통이, 싱통이, 싱애라고 하든 어떨까

지역 사람들은 ‘심통이’보다 ‘싱통이’라고 더 부른다. 때론 ‘싱애’라고도 한다, 이는 이순(耳順)을 넘은 지역 사람들이 쓰던 불과 20여 년 전의 옛말로 ‘싱통이’를 잡던 어부들이 ‘싱통이’의 별칭으로 불렀던 이름이다. ‘싱애’의 뜻은 ‘싱’은 싱통이를 뜻하고, ‘애’는 암컷 싱통이의 내장인 ‘애’를 뜻한다. ‘싱애’는 ‘싱통이 알탕’ 맛과 관련이 깊은 이름이다. ‘알탕’을 끓일 때, 내장인 ‘애’를 반드시 넣어야 제 맛이 나는데, 시큼시큼하게 삭은 묵은 김치를 자박하게 썰어 넣고, 김치국물을 한 국자 넣어 끓이면 ‘애’와 ‘김치 국물’에서 더욱 깊은 감칠맛이 나고 구수해지는 식당에서 알게 되어 부르게 된 이름이다. 지금부터 뼈가 익세지는 음력 2월까지가 ‘싱통이가 딱 맛있을 때’이다. 수놓은 뼈째로 자작하게 썰어 꼬들꼬들 할 만큼 데쳐 무채를 넣고 초고추장에 썩썩 버무린 회로도 좋고, 묵은지를 넣고 삼삼하게 끓인 ‘알탕’도 좋으며, 알은 바닷물에 굳혀 찌먹고, 꾸덕하게 말린 싱통이에 김치를 둘러 볶은 두루치기도 좋다. 그렇지만 싱통이의 참맛은 바닷바람에 열흘 정도 딱딱해 질 정도로 꼬들꼬들하게 말려 두었다가, 이듬해 설날에 아무 양념을 하지 않고 찜통에 찌서 자잘하게 썰어 참기름을 두른 간장양념에 찍어 먹는 ‘말린 싱통이찜’이다. 그 맛이라는 게, 덧붙이지 않더라도 쫄쫄한 육포를 뜯어 먹는 듯하고, 곱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깊이 나는 게 감칠스럽기 까지 하다. 이를 양양의 포구 사람들은 설날 제사상에 제례음식으로 올리기도 한다.

## 양양의 3대 미향 따라 맛봐야 할 ‘싱통이’

‘말린 싱통이찜’은 안타깝게도 포구의 식당에서도 쉽게 먹을 수 없어 제철에 말려 두었다가 내년 설날에 제철 별미로 먹어 볼 일이다. ‘말린 싱통이찜’은 알탕이나 숙회에 밀려 잘 알려지지 않은 예전의 음식으로 주로 수산항이나 물치항, 남애항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 조리법은 간단하다. 말린 싱통이만 썰어 간장을 밑간으로 파,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볶다가, 참기름을 두르면 그만인 음식이다. 때론 여기에 돼지고기를 썰어 넣고 함께 볶아 먹는 경우도 있었다. 벌써 ‘싱통이’가 포구나 어시장에 나왔다. 이왕 양양의 제철 별미 ‘싱통이’를 먹을 일이라면 바닷바람 따라 긴 겨울 그리 읊듯 떠오르는 아침 해가 청명한 양양의 포구를 찾을 일이다. 수산항은 요트의 이국적인 느낌의 배경이 좋으며, 물치항은 붉고 하얀 송이등대가 이채로운 배경으로 좋으며, 남애항은 스카이라이프 전망대 아래로 끝없이 수평하게 펼쳐지는 푸른 바다의 배경이 좋은 곳이다. 이곳을 둘러 본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의도하지 않더라도 포구의 곳곳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양양음식을 대표하며 즐겨 먹고 있는 겨울 제철 별미 ‘싱통이’맛을 반드시 먹어야 할 때인 것을 알려 주기라도 하듯, 식당의 유리창마다 ‘싱통이’메뉴가 붙어 있다.

〈글·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철〉



##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양양남대천' 고운 빛깔로 가득 한 양양남대천의 가을로



어머니의 강 남대천, 양양8경중에서도 1경으로 꼽히는 남대천은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연어처럼, 구룡령과 응봉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들도 양양의 속살을 적시며 이곳으로 모여든다. 양양의 구석구석까지 싹틔줄처럼 퍼져있던 생명의 물줄기들은 그렇게 남대천과 만난다.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한 남대천. 가을이 가기 전 그 길을 따라 가는 편안한 여정을 떠나본다.

###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남대천 억새밭

남대천 하구에 위치한 생태관찰로 나무 데크 길을 따라 펼쳐진 은빛 억새밭의 풍경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낭만적인 매력이 있다. 햇살이 부서져 내려앉은 듯 반짝거리는 억새꽃이 바람을 만나 흔들리면 눈앞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진다. 천천히 데크를 걷다보면 시선 끝에 걸리는 낙산대교와 남대천의 잔물결을 감상할 수도 있다. 전망대 벤치에 앉아 억새와 남대천물결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일상의 복잡한 생각을 툭 내려놓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곳 남대천 억새밭은 카메라 셔터만 누르면 그 자체가 '인생 샷'이 되기에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양양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 붉게 물든 양양남대천 둔치 길

은빛 석새밭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았다면 남대천 둔치 길로 올라가 보자. 4월 하얀 눈송이를 내려주던 양양남대천 둔치의 벚꽃 길은 이 가을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내려준다. 가을빛에 흠뻑 물들어 있는 양양남대천 둔치 길은 경사가 없이 평탄하여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가을 단풍코스이다. 머리 위로 색종이를 잘라 붙인 듯 선명한 빛깔을 뽐내는 단풍들이 한들거리고, 발아래로 깔린 낙엽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쾌함을 더한다.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 붉게 물든 단풍 길을 걷다보면 이 가을 묻어두었던 쓸쓸함도 외로움도 사라져 버린다.

## 정겨운 그곳, 먹거리 천국 양양5일장을 만나다.

3Km 정도의 직선도로를 걷다보면 양양시장을 만날 수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걷다보니 시끌벅적 양양5일장이 열리고 있다. 북적북적한 장터를 걸어본다. 배추, 무, 김장장터가 열려서 더욱 활기를 띤 시장에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한껏 받아본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시장 내 국수집에 자리를 잡는다. 송이칼국수, 능이칼국수, 얼큰한 장칼국수 입맛대로 골라먹는다. 따끈한 국물에 온몸에 노곤함이 몰려온다. 아무 준비 없이 문득 걷게 된 양양남대천, 오늘 가을의 끝자락에서 남대천길을 따라 걸으며 마지막 가을에 흠뻑 취해 본다.



###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 선정 ‘양양남대천 생태환경길’

- 탐방로길이-약16Km, 탐방소요시간-약 4시간  
남대천자연생태공원-송이밸리자연휴양림-연어사업소-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낙산대교

#### 키워드로 보는 Tip\_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강원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3 ☎033-670-2644)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동에서 숙박이 가능하며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인문·문화체험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보고 즐길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송이의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송이관이 운영되고 있다. 구탄봉에 오르면 양양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 ☎033-671-2000)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오산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전문 박물관으로서 귀중한 문화유산을 전시 보존 연구하고 있으며, 토기맞추기 등 문화체험이 가능한 열린공간이다.



## 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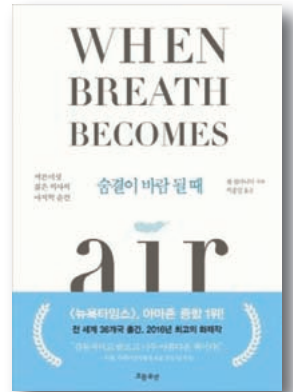
### “서른여섯,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

이 책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폴 칼라니티의 자서전입니다. 레지던트 생활 중 연구원으로서의 성과도 인정받아 미국 신경외과 학회에서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한 그는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 받는 등 촉망 받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온 그가 직접 자신의 죽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리에 힘이 없어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수술실을 지키는 그의 모습은 그가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작가로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시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는 아직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우리의 삶과 결부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책 속 밑줄 긋기

『중병에 걸리면 삶의 윤곽이 아주 분명해진다. 나는 내가 죽을 리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건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대로였지만 인생 계획을 짜는

숨결이 바람이 될 때 / 폴 칼라니티  
지음 / 흐름출판 / 2016



####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볼드 지음, 반비, 2016
- 언어의 온도  
이기주 지음, 말글터, 2016
- 아흔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옥남 지음, 양철북, 2018

능력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만 하면 앞으로 할 일은 명백해진다. 만약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1년이라면 책을 쓸 것이다. 10년이라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살 수 있을 뿐이라는 진리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하루를 가지고 난 대체 뭘 해야 할까?』 (p. 193)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지음 / 블랙피쉬 / 2018

작품 탄생에 담긴 기막힌 반전부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담은 미술 교양서입니다. 저자는 높게만 느껴지는 미술 문지방을 가볍게 넘을 수 있도록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술가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 프리다 칼로, 에곤 실레, 파블로 피카소, 클로드 모네, 마르셀 뒤샹까지 미술계 거장들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며 미술 교양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차게 전합니다. 저자 특유의 유머러스한 필치와 전매특허 스토리텔링을 고스란히 담아 더없이 친근하고 인간적인 미술계 거장들의 매력에 빠져들게 합니다.



#### 인어 소녀

도나 조 나폴리 지음 / 보물창고 / 2018

이 책은 데이비드 위즈너 특유의 환상적인 분위기와 언어학자인 도나 조 나폴리의 절제된 언어가 더해진 환상 동화입니다. 글만큼이나 그림으로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인어 소녀가 마침내 바깥세상을 마주한 순간 넓게 펼쳐진 바다는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도 해방감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자유로움을 꿈꾸게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흥미진진한 판타지 동화를 읽는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아름다운 메시지를 감상하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화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 사업장명            | 인원 | 모집직종                | 근무시간              | 급 여          |
|-----------------|----|---------------------|-------------------|--------------|
| (주)교원 스위트호텔낙산   | 1명 | 프론트사무원              | 교대근무              | 연2,200만원 이상  |
| 양양수산            | 5명 | 생산직                 | 08:00~17:00       | 시급 7,530원 이상 |
| 설해원 골든비치리조트     | 4명 | 조리보조원               | 교대근무              | 월200만원이상     |
| 정다운마을           | 1명 | 사회복지사               | 3교대               | 협의           |
| 양양지역자활센터        | 1명 | 배송기사                | 09:00~18:00 (주5일) | 월160만원       |
| 일양종합금속(주)       | 2명 | 샷시조립 · 설치원          | 07:30~18:00 (주6일) | 월190만원이상     |
| (주)재성정보통신       | 2명 | 통신장비 설치 · 수리원 (경력자) | 08:30~18:00 (주5일) | 연3,000만원     |
| 낙산비치호텔 세렌디피티커피숍 | 1명 | 바리스타                | 15:30~21:30 (주6일) | 월136만원       |

| 사업장명          | 인원  | 모집직종    | 근무시간              | 급 여      |
|---------------|-----|---------|-------------------|----------|
| (주)골든에스엔씨     | 14명 | 객실룸메이드  | 08:30~18:00 (주6일) | 월210만원   |
| 양양지역자활센터      | 1명  | 조리사     | 09:00~18:00 (주5일) | 월185만원   |
| 동행노인복지센터      | 00  | 방문요양보호사 | 협약가능              | 자사규정에 준함 |
| 낙산요양원         | 1명  | 요양보호사   | 4조 3교대 (주40시간)    |          |
| 디모테오꿈마을 요양원   | 1명  | 요양보호사   | 4조 3교대 (주5일)      |          |
| 이슬어린이집 (대체근무) | 1명  | 보육교사    | 08:30~18:00 (주5일) |          |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 관련 집중신고기간**  
**2018. 10. 15. ~ 2019. 1. 14.**

〈 어린이집 · 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

- 어린이집 · 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어린이가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 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 · 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함께해요! '산불 예방'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합시다!

-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고춧대·폐비닐 등과 같은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는 허가 없이 소각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맙시다.
- 부득이 논·밭두렁, 영농부산물을 소각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마을단위로 신고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 산행을 할 때는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라이터, 취사용 버너, 성냥 등과 같은 화기물질을 절대 휴대하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산림관서 등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합니다.
- 주위의 정신 질환자나 노약자가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놓거나, 인화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특별히 보호·관리합니다.
- 마을 주변의 산림은 마을주민 모두의 생활 터전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책임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운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군 산림부서나 읍·면·동 사무소, 소방관서(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산불방지대책본부 033) 670-2424

##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1366이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현장출동과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 법률, 경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원스탑 보호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상담 등 관련 상담소 안내 및 연계

□**상담시간**: 1년 365일 24시간

□**상담방법**: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홈페이지, NAVER 지식in)

□**기타사항**: 친목모임, 소규모 그룹의 가정폭력 초기예방교육 진행,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위 치**: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 3층

□**상담전화**: 033-1366

□**홈페이지**: <http://www.1366.or.kr>

□**후원문의**: 033-252-4041 / 농협 203-01-511052(강원여성1366)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소중합니다.-

## 2018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

□교육기간: 11. 12 ~ 12. 14(접수기간: 10. 8. ~ 11. 11.)

·주간반(28명/선착순) - 월수금 / 10:00~12:00

·야간반(28명/선착순) - 월수금 / 18:30~20:30

| 과정명        | 1주차                        | 2주차                       | 3주차                        |
|------------|----------------------------|---------------------------|----------------------------|
| 파워포인트 2010 | 프리젠테이션 이해 및 화면구성요소         | 슬라이드 기본 사용법, 텍스트 슬라이드 만들기 | 도형 슬라이드 만들기 (도형 그리기, 점 편집) |
|            | 4주차                        | 5주차                       | 6주차                        |
|            | 도형 슬라이드 만들기 (3D 효과, 서식 기법) | 이미지&디자인, 차트&표 슬라이드 만들기    |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화면 전환 효과       |

※ 강좌별 신청자가 15인 미만일 경우 강좌 개설 불가

※ 수 강 료 : 무료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양양군 홈페이지), 담당부서 방문 및 전화 접수

□문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부서 033-670-2462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e-커머스 및 마케팅' 11월 무료 교육

□대상 : 강원도민, 강원도 내 중소기업인, 관심 있는 누구나

□일시 : 2018년 11월

□장소 : 춘천시 춘천순환로 613 청일빌딩 3층, (중소상공인 강원희망센터)

□교육내용 :

- 글로벌 셀러(e-bay) 양성 교육 (11월 5,6,7일)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초 교육 (11월 8일)

- 스토어 디자인 제작 실습 교육 (11월 12일)

- 검색광고 교육 (11월 15일) - 카카오 마케팅 교육 (11월 16일)

-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활용 교육 (11월 19일)

- SNS 마케팅 활용 교육 (11월 26일)

□접수방법 : 중소기업인 강원희망센터 홈페이지(gangwonheemang.modoo.at)

□문의 : 중소기업인 강원희망센터 (☎244-5895)

## 2018년 양양군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지원대상 : 관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2017. 11. 01.~'2018. 10. 31. 기간 중 완공된 다음의 단독주택 중 「양양군 지방건축 위원회」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문화 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 복구 주택

·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미만의 단독주택

□지원규모 : 5동(금20,000천원) □지원금액 : 동당 4,000천원 보조

□지원신청

가. 신청시기 : 2018. 11. 15까지

나. 신청기관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소정양식:신청기관 비치)

□문의 : 양양군 허가민원과(건축 670-2275) 각 읍·면 산업개발

## 『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 안내』

### 1. 무료 예방접종

- 대상자 : 만 65세이상 노인 (1953.12.31 이전 출생자),  
생후6개월~만12세어린이 (2006. 1. 1~ 2018. 8.31출생자)  
국가유공자, 1~3급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만13세이상)
- ※ 만65세이상 노인, 6개월~만12세어린이는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가능

### □ 접종기간

- 의료기관(65세이상노인) : '18.10. 2(화)~11.15(목)까지(기일엄수)
- 보건소 (65세이상노인) : '18.10.16(화) ~ 백신 소진 시까지
- 의료기관 및 보건소 (생후 6개월 ~만12세 어린이)  
: '18. 9.11(화) ~ '19.4.30(화)까지("중앙외과"초등학생만 접종)
- 보건지소 진료소 : '18.10.16(화) ~ 백신 소진 시까지

### □ 접종시간 : 오전 09:00~12:00, 오후 13:00 ~ 17:00

###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의료급여카드,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반드시 지참

### 2. 유료 예방접종

### □ 대상자 : 만13세(2007.1.10후 출생자) ~ 만 64세까지 양양군 주소지를 둔 자

### □ 접종기간 : '18.10.30(화)~ 백신소진 시까지

### □ 접종시간 :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 □ 접종장소 : 양양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 □ 접 종 비 : 8,000원

### □ 문 의 : 양양군보건소 ☎670-2940/ 670-2540

# “붉은불개미”

## Red imported fire ant

남미 원산으로 교역을 통해 한태평양 여러 국가로 퍼져나가  
동·식물,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 형태적 특징



- 몸은 적갈색, 배는 검붉은 색
- 자루마디 개수는 2개
- 크기는 개체에 따라 2~6mm

### 접촉시 증상 (독침에 쏘일 경우)



- 정도 : 쏘이는 순간 찢어듯 통증이 느껴지고 가려움증 유발
- 증상 : 부기가 커지고, 부분적 또는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 중증 : 숨쉬기가 곤란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한기증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기도 함

“독침” 붉은불개미에 쏘였을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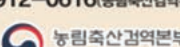
### 발견 가능장소



- 컨테이너 내·외부 및 야적장, 목재야적장
- 수입화물 및 보관창고
- 공방만 주변 어스필드균열부 등

특히, 컨테이너 내외부에서 붉은불개미 의심되는 개미류 발견시 접촉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주세요! (신고보상금 30만원 지급)

☎ 054-912-0616(농림축산검역본부), 119 안전센터, 안전신문고앱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Bye 인감~ Hi 서명!!

○●○○○

아직도 장승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양양"

# 2018 양양군 사회복지박람회

2018년 11월 8일(목) 10:30 ~ 17:00  
양양군실내체육관

-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1월 8일(목) 11:00 ~ 11:30
  - 축하공연
  -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 기념사·축사
- ♥ 사회복지 박람회
  - 양양군 사회복지 정보의 장
  - 스트레스해소체험, 구인구직상담, 수어홍보 및 전시, 사회복지기관 생산품홍보
  - 기부물품 나눔 및 먹거리장터
  - 기념품 제공
- ♥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 성악가 초청 공연
  - 열창가요 봉사단 공연
  - 복지퀴즈 왕
  - 경품 추첨
- ♥ 주최 : SSN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 ♥ 주관 : 양양군
- ♥ 후원 : 양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넘어지면 코 닿을 양양

서울-양양  고속도로 90분!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쉽고 빠른 양양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풍부한 볼거리 즐길 거리까지 가득한 관광명소, 양양으로 떠나보세요!

서울-양양 1시간 30분 **양양**이 가깝다, **즐거움**이 가깝다!



#### 가지각색 볼거리

낙산사, 하조대, 오색주전골,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낙산해변, 죽도해변 등



#### 사시사철 먹거리

송이버섯전골, 감자옹심이,  
메밀국수, 산채요리, 화성면,  
섭국, 두거리탕 등



#### 체험일색 놀거리

서핑, 요트, 바다낚시, 짚라인,  
오색온천, 농어촌체험,  
양양5일장, 물치비치마켓 등